

# “2학기 전복농촌유학 신청하세요”

### 전북교육청, 24일까지 모집... 운영학교 9개교 추가 총 32개교서 유학생 선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4일 까지 2학기 전복 농촌유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 올해부터 1학기 2학기 두 번에 걸쳐 농촌유학을 모집한다. 2학기에는 농촌유학 운영학교가 9개교 늘어 총 32개교에서 유학생을 뽑는다.

1학기 현재 전복농촌유학생은 23개 교에 총 133명이다. 2022년 하반기 27명을 시작으로 2023년 84명, 2024년

13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학기 전복농촌유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학부모)은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로, 서울 외 지역 학생은 전북교육청 교육협력과로 메일(hwarang8799@jedu.kr)이나 팩스(063-220-9406)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27일 전복 농촌유학 누리집에서 가배정 결과를 확인 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사 전방문 기간에 유학학교와 거주시설

을 찾아 면담을 해야 한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7월 10일까지 최종 신청서를 접수해 7월 15일 농촌유학 대상자를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예비유학생제’를 도입해 이미 전학을 와 있는 학생 3명도 2학기부터 농촌유학생으로 참여한다.

예비유학생제는 농촌유학생 모집기간이 아닌 시기에 전학 온 학생을 예비유학생으로 지정, 다음 학기부터 농

촌유학생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오는 8월 수도권 지역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유학 한마당을 열어 농촌유학 사전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11월에는 찾아가는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전복 농촌유학은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농촌에서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지난 몇 년 동안 농촌유학생 모집에 상당한 성과를 거둬 이번에도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

### 15일 개최... 선수단 · 관계자 5000여명 방문 예정 ‘브리튼스 갓 탤런트’ 결승 진출 ‘싸울아비’ 특별 공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오는 15~23일 제2회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회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격파·품새) 대회는 인준대회로 승격된 지 1년 만에 2,800명의 중·고교 선수가 참가를 신청했다.

싸울아비의 수장인 이숙경 교수(태권도학과 학과장)는 “BGT를 통해 영국 전역에 태권도의 메카인 전북의 자존심을 보여줬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많은 태권도인들이 세계를 누비는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 기간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포함해 5,000여 명이 전주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 season 17, 이하 BGT)에 골든 버저로 40팀의 세미파이널에 올라 최종 11팀이 결승에 진출한 전주대 태권도시범단 ‘싸울아비’ 팀이 개최식에서 BGT 결승에서 선보인 ‘The Classic’ 특별 공연이 예정돼 있다.

박진배 총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016년 태권도를 지방무형문화재로 올리는 등 태권도의 근원지인 전주시를 중심으로 미래 태권도 경기 문화와 태권도 발전을 위해 전주대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회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에 입상한 선수들은 전주대학 입시 특례 혜택과, 국가대표 선발권이 부여된다. /장은성 기자



1.전북사대부고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영국의 한 학교에서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2.지난 1~8일 전주근영중이 독일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졌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시동

### 전북사대부고, 영국서 · 전주근영중, 독일서 체험학습

#### 이달 중 5개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40개교서 진행

국제교류수업과 연계한 해외 현장체험학습이 본격화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사대부고가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영국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8일 전주근영중이 독일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올해 국제교류수업 학교 63개교 중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여학교는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5개교 등 모두 40개교, 750여 명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70여 명 증가한 것으로, 교류 국가도 영국·호주·뉴질랜드 등 18개국으로 확대됐다.

가장 먼저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나

선 전북사대부고는 영국 런던의 비숍 첼로너 스쿨에서 △영국 짜꿌 친구와 그리니치 천문대 방문 △물리수업 등 과학과 천문학을 주제로 교류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영국 문화수업, 한글 부채만들기 등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함께했다.

전북사대부고 윤현서 학생은 “영국 친구들과 우리 문화를 가르쳐주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면서 “영국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견학하며 우리와 다른 점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근영중은 독일 하일리겐하

우스레알슬레를 방문해 역사와 평화를 주제로 교류수업을 했다.

독일 학교 학생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쾰페어리안 광산 방문, 파독 광부 역사적 의미 이해 △이준 열사 기념관, 헤이그 탐방 등을 통해 우리 역사와 세계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

전주근영중 조은경 수석교사는 “진정한 국제교류란 더불어 사는 세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평화를 위한 연대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독 청소년들이 만나 토론하고, 또 독일 및 네덜란드에서 역사를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6월 5개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40개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이차전지 분야 인력 양성

#### 전주기전대, 이리공고와 협약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13일 종합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이리공고 고등학교와 이차전지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배터리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 양성 교육 실시 △배터리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배터리 분야 기술 정보 제공 및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기전대학은 추가로 △시설·기자재 등 교육 지원 공동 활용 △교내 장학금 기준에 따라 MOU 체결 관련 학과 입학생 중 우수 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지급 등 국내 배터리(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6급 핵심인재 양성 5기’ 과정 공동정책연구 세미나

###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은 13일 ‘6급 핵심인재 양성 5기’ 과정 공동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6급 핵심인재 양성 5기 과정에서 연구한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전북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지방공무원 20여 명이 함께했다.

6급 핵심인재 양성 과정은 전북교육청 행정 조직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의 전문성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6개월 장기교육과정이다.

이에 교육연수원은 공직자치 및 전



문 직무역량, 소통과 통합에 필요한 관계역량, 자기개발 미래역량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교육행정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수생은 장기교육과정 중 분임별로 공동정책 연구를 수행, 다변하는 교육행정 환경에 필요한 실천적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이날 발표한 공동정책연구 주제는

△물품통합운영센터 모델 구축 △작은학교 행정실 기능 재설계 △폐교재산 관리 고도화 방안으로, 전북교육 현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병기 원장은 “6급 핵심인재 양성 과정을 통해 전북교육행정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들이 조직 내에서 통합과 협업을 이끌어내는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연수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egfmx9x3dn>)에 탑재돼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국립군산대 아카데미홀서 공학이노베이션 데이 경진대회

국립군산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지난 5일 국립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공학이노베이션 데이 경진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12일에는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기초설계 부분에서 16개 팀 74명, 종합설계 부분에서 24개 팀 104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기초설계 부분에서는 건축공학 전공의 ‘너와 나의 연결다리’ (주제:아름다운 교량만들기), 종합설계부분에서는 기계공학부 ‘핵사탄’ (주제:프로펠러 없는 드론)이 대상을 받았다. 그 외에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부분별로 금상 3팀, 은상 3팀을 시상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소프트웨어 분야 공동 연구개발 · 핵심인력 양성 협력

###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미소능력개발센터와 협약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학과장 류덕산)는 지난 12일 (주)미소능력개발센터(대표이사 강현신)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미소능력개발센터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항공보안 등 기업체 전문 직무교육과 K-디지털 기초역량 교육 등 개인 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보완적인 R&D 역량 및 우수 인력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소프트웨어(SW)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학생과 기업 간 교류를 비롯해 산학 멘토링, 취업 연계형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등 SW분야 핵심 인력 양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류덕산 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매우 기쁘다”며 “긴밀한 연계를 통해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교육과 연구에 반영해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학생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초등교육 전문가 늘봄학교 관리자로 추가 교원 수요를 신규 교사로 충원”

###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초등교사의 업무 감경 및 늘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장협의회는 먼저,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밀학급 해소, 행정 업무 간소화, 학생 관리 부담 경감, 학부모 소통 및 민원 대응 지원 등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초등교육 전문가를 늘봄학교 관리자로 선발하고, 그에 따른 추가교

원 수요를 신규 교사로 충원함으로써 돌봄 관련 업무가 일반 교사에게 부가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초학력전문교사, 다문화·이중언어교육전문교사 등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교사를 추가 양성하라고 했다.

총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 현장 및 정책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그에 필요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12일 전주시,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제8회 미래전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 디지털 헬스케어 ·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고도화

### 전주대 '제8회 미래전복포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2일 제8회 미래전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포럼은 1부에서는 전주시와 전주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지역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포럼에서 박진배 총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원천인 바이오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전주대에서는 기업과 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양성 및 공동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김인태 부시장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주시는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식품연구원 백형희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 식품산업의 핵심 지역임을 강조하며,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식이, 건강, 장애 미생물 등 다양한 바이오 DB를 기반으로 한 AI 개인맞춤형 식이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공공기관은 물론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산학연관 협력을 위한 중간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이며 미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2부에서는 초청 강연으로 네이비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이 ‘디지털 헬스케어 2024 : 생성형AI의 시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BD 분석연구팀 변정우 팀장이 ‘신약 제조부터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데이터가 말해주는 첨단 바이오 분야 유망 사업 기회’, (주)이마를 김현진 대표가 ‘차세대 메디푸드 패러다임의 혁신과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3부 패널 토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K-푸드테크 신산업’이라는 주제로 한국식품연구원 김명성 본부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은정 센터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정이형 실장, 원광대 농생명·바이오사업단 최준호 단장, 전주대 지역혁신단 한동욱 단장 등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